

고린도후서 5장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靈)입니다. 진짜의 나는 영(靈)과 혼(魂)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동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비활성 물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었습니다. 이 진짜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고, 그 흙집 안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앞 장에서 영광스러운 복음과 복음의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즉 흙으로 된 이 몸 안에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의 영은 몸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의 몸의 매개체를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 흙으로 된 장막, 즉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몸이 무너지면, 즉 내가 이 몸을 떠날 때, 내가 이사해 나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이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이 몸을 떠날 때, 그 몸은 즉시 분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땅에서 취해졌으니 땅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몸과 내가 영원히 살 새 몸,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새 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내 몸은 나의 조상의 선천적 결핍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매우 튼튼하고 건강하며 강건하였습니다. 유전 인자의 총체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 유전 인자의 총체는 오염 되어졌고 세포들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대대로 내려온 유전 인자들의 복합물입니다.

유전 인자 연구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결론짓기를 우리 모두는 평범한 한 쌍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자의 본체(DNA) 연구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한 공통의 조상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데는 과학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래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한 쌍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들로부터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이 오염된 유전 인자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100살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나는 100번째 생일을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몸으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할 생각도 없으며 100번째 생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때쯤은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집으로 나를 데려가 거기 거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새 몸과 현재의 몸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할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자연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씨를 땅에 뿌릴 때, 너희는 장차 나타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씨앗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내가 가질 새 몸 사이엔 이 신비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살아나셨고 같은 몸을 가지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몸을 부패시키는 요소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파괴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나가는 순간, 즉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죄의 요소로 인하여 우리 몸은 분해 되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말씀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에게 ‘이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에게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은 죄가 없으셨기에, 그의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의 몸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부패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몸에 향품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에 부패시키는 요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입으신 그대로 하늘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입으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들과 같이 부패되는 조건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현재의 몸과 관련된 새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우리로 장래에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몸이 무너지거나 다시 흠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이 몸은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새 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빌립보서 1:19-24) 말하기를, 나는 생각이 착잡하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욕망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으로 옷 입기 원했습니다. 그의 갈망은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돌을 맞은 후 실제로 죽었었는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것인지, 살아있었지만 기절한 상태에 있었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셋째 하늘에 있었고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진짜 들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인, 새 몸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3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몸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혼이 잠자거나 형체가 없는 망각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라고 말한 것은, 내가 떠나서 이러한 망각의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천국에 있었고, 거기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은 거기에 누워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울면서 그의 주위에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기에 누워있었지만 바울은 천국에서, 와, 찬란하도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돌에 맞아 땅에 누워있는 그의 몸을 보면서 울고 있는 동안에 그는 천국에서 황홀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새 몸으로 옷 입고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옷 입는다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형체 없는 영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12-14)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쓰고 있노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쓰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도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장막을 떠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기록된 진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그것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되풀이해야 할 진리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는 반복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로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장막으로 말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시적인 장소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몸에서 나의 영과 혼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기 남아서 분해 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집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벗거벗고자 함이 아니라, 옷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고린도전서 15:51)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거의 같은 말을 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되었느니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사망의 쏘는 것도 사망의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관한 것은 자주 야기되는 주제이고, 거의 제시되지 않는 한 가지 견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키론 이 주제에 아주 적절한 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들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4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과 시간과 분, 초를 말하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로 수 억분의 일 초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일들을 측정하고 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출생, 사망, 내일, 오늘, 어제, 지난 주, 다음 달, 등 우리의 전체 생각하는 과정이 시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물질적인 영역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시간적 차원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며,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나는 사건들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의 궤도를 선회하면서 년수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궤도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궤도 밖에 계십니다. 해가 마침내 꺼져버리고 다시는 지구의 순회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모든 궤도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시작부터 아십니다. 전도서(3:15절)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전에 있었던 것이라?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다고? 솔로몬은 영원한 차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인간의 몸을 떠날 때, 나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장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시각에서는 부활은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이 부활과 시간적 요인의 주제를 토론할 때에, 그들은 그 전체를 영원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용어로 생각해서, 내가 만일 죽는다면, 주님께서 5년 후에 교회를 위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면 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뜻 깊은 교제를 하고, 당신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를 열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당신이 이 몸을 떠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영광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장래에 계획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주님의 진지한 의도에 대한 보증으로 내는 첫 지불액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구점을 갔는데, 아름다운 침대 한 세트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으로 견퉁이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반액 세일 가격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당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었고 더욱이 반액 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표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판매원에게, ‘이 가구는 내가 찾고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사기를 원하나 지금 수표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현금 200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물건을 꼭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판매원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 200불을 보증금으로 준다면 이 물건은 당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서 수표책을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 판매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만일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이 다시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죄송하지만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고, 이 물건을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당신을 위해 이 물건 보유하므로 그것을 판매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을 진심으로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로 저당금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보유하도록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당신이 오래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었고 곧 수표책을 갖고 다시 와서 가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반액으로 살 수 있는 일생의 기회이기에 당신은 매우 흥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와서 구매를 종결할 것임을 보증하는 저당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렇게 할 의도가 있고, 또 여기 첫 지불액이 있노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에 대한 계약을 완성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주님께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속을 받을 때까지 유업의 보증이십니다.

6 이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몸에 거할 때에는**(우리가 이 장막 집에 거하고 있을 동안)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나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쓰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 받아, 그 안에서 완전하여 보좌 앞에 설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있는 영광의 총만함입니다. 기대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소망이 있습니다.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통하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9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그분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를 위해 힘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 축복 중에 하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이 몸에 거하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주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설 하나님의 대 백보좌 심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인 우리가 이 몸 가운데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했던 일들에 대한 상급을 받기 위해 설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비마(Bema)”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석을 말할 때에 사용한 것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이겼을 때, 그가 심판석인 심판대 앞으로 나오면, 심판관이 그의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상금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속임수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가 걸리게 되면 받은 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행함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동기를 갖고 행하였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동기가 올바른 것이었기에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었으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만, 당신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상을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은혜로우며, 인자하고, 친절하며, 관대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들을 내 자신에게 관심을 끌도록 하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구제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구제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 앞에 나팔을 불어댄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밴드가 나팔을 불며 행진하여 와서 그들의 헌금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오, 저것 좀 보게! 그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보았는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세’ 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상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신령한 지를 나타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어떻게 나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에게 주의를 끌고, 영광과 칭찬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리는 경외와 찬양과 박수가 당신의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했던 일들 뒤에 있는 동기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내가 그것을 했는가?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박수와 능력들이 나의 동기였는가?

성경은 내가 한 일들이 불로 심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한 모금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천불을 헌금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읽으면서 춤을 추는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상을 이미 받았습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

할 것이므로 많은 실망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선약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15-30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심판할 때, 다섯 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두 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한 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께서 투자한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땅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스스로 판단을 했노라!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업자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결과에 대해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의로운 일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동기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확실성에 도전을 하고 있었고, 또 그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학대하고 때리면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왔건만 너희는 나를 적대하는구나. 잔혹한 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매를 맞거나 학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금을 거두어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바울이 와서 일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로부터 아무 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여기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너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현금도 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항상 과시할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너희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노라. 나는 외모를 나타내려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것은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말을 한다. 미친 사람이 거리에 나가 혼자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는가? 바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무엇이 그에게 동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나의 동기라. 그것이 나를 떠미노라. 그것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지옥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온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갈망과 경배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너무나 강권하셔서 그것을 그는 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고 있었던 이 이상한 교리를 토론하기 위해 그들이 아레오바고(Mars Hill)로 그를 초대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 했었는데, 그것을 초월한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잃어버린바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잃어버린바 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함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는 이것에 대해 시리즈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2장 20-2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람의 육체나, 육체적인 성취나, 재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때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십니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모든 사람에게 답변”의 우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만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스페인어든, 다 ‘모든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고 모든 것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게 살아와서 도저히 재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거의 모든 죄와 죄의식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두가 새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한 때 하나님의 원수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원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항과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반항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죄악도 더 이상 계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범한 모든 죄와 죄악들이 완전히 지워져서 기록이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 더 이상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죄는 간음, 살인 그리고 간음을 덮으려고 했던 죄들로 더욱 복잡되어졌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는 한 이야기를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자를 판단했을 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했으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자마자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당신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범죄 하였다고 말하는 그 순간, 선지자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저앉아 잘 표현하여 말하기를 (시편 32:1,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도 기쁜 일인가! 다윗은 더 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 짓는 면허장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이 죄에 대한 허락서 라고 생각한다면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 가운데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종종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기록하시고는 그것들을 지우셨다면, 오래 전에 종이가 다 낡아졌을 것입니다. 오, 주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0 이렇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주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는 나라를 대신하여 말합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는 미국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외교관에게 미국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노라. 계속 죄 짓지 말라! 계속 반항하지 말라!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할 너희들 자신의 길로 가지 말라!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제 주님을 위해 너희 삶을 살지라. 너희 자신이나 너희의 이기적인 만족과 야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너희의 삶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라.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완전하시고, 순전하시며, 거룩하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순전하신 예수님께 갑자기 이 끔찍한 살인, 강간 우리가 읽는 우리의 온갖 잔악함을 그분에게 내려놓으셨으니 성령께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 하고 생각해보곤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계획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맡으셔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가로 당신에게 무엇을 대신 주실 것인가요? 주님의 의(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러한 법을 지키고 날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행하도록 점검하여 네가 온전함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부패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굉장한 구원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원수였었고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위대한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고 모든 것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사랑! 진실로 주님, 당신의 사랑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전하며 죄 사함의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이방인들을 대하여 당신의 사신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로 당신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